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찾아 온 건강 전도사 윤방부 가천의대 부학장

“노인들이 뭘 원하는지 보여준 모범 사례”



“장수하지 마세요. 100살 넘게 살면서 수십 년 간 아프면 뭐합니까? 이제 장수도 약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이에요. 내일 죽더라도 여한이 없게 재미있고 열심히 사세요. 사람은 죽을 때 죽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주시는 것이며 너무 유난 떨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인데도, 300석의 자리도 부족해 계단과 빈자리에 걸터앉은 500여 명의 노인들은 자지러지며, 박수와 환호를 쏟아냈다.

지난 14일 오후 2시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하 건강타운) 공연장 무대에 선 사람은 다른 어떤 윤방부 교수(67·가천의대 부학장). 한국 가정의학 제1회 전문의, UN지정의사라는 공식

직함보다는 방송에 출연해 어려운 의학상식을 알기 쉽고 따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내 명성을 얻은 윤 교수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와 농담 등을 적절히 섞어가며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1시간 30분 강연시간을 넘겨가며 ‘스트레스와 친구하기’, ‘배우자와 잘 지내기’, ‘스포츠 생활화하기’,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만족하며 살기’, ‘1년에 한 번 정기검진하기’ 등 자신의 건강철학을 설명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집대성한 적은 없었다”고 건강타운을 추천해준 그는 “경로라는 낡은 사상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고에 정말 감탄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각종 노인정책은 노인들이 할 일 없이 그저 소일거리를 즐기거나, 혹은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로만 인식해왔기 때문에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 교수는 “광주에서의 이 같은 시도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노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 모범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신만의 건강법을 지속적인 운동이라며, “27년 간 매일 10km를 50분 내에 걸거나 달렸으며, 61세부터는 시간을 1시간 3분으로 늘렸다”며 “5일 간 하고 주말은 쉬었으며, 마음대로 먹었다”고 그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973년 광주의 사회복지시설인 충현원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유성우(41·미시간주·오른쪽)씨와 그의 부인(33)이 16일 충현원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출신 美 입양아가 고국서 고아 입양 감동

유성우씨 “충현원 방문 친부모 찾아달라” 요청도

36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광주 출신 입양아가 고국에서 고아를 입양해 감동을 안겨 주고 있다.

1973년 광주의 사회복지시설인 충현원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유성우(41·미시간주)씨는 그의 부인(33)과 함께 16일 충현원을 방문해 여느 부모들처럼 생후 11개월 된 아이에 대한 애뜻한 사랑을 드러냈다.

이 부부는 6개월 전 동방아동복지회에 “한국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지난 10일 한국을 방문했다.

유씨는 “내 양부모는 나를 포함해 한국 아이 2명을 입양해 키웠다”며 “그런 양부모를 본받아 나 또한 고국의 아이를 입양해 키워 보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처음 보자마자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양부모처럼 훌륭하게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아이와 가족으로서 소중한 시간을 보낸 유씨는 지난 15일 이제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충현원을 방문했다.

그는 입양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 충현원 유혜량(여·59)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충현원에는 이름과 자신의 주소를 밝힌 누군가가 1971년 2월15일 당시 3살인 유씨를 충현원에 데려왔고 유씨는 충현원에서 자라다 1973년 미국으로 입양된 기록이 남겨져 있다.

유씨는 이 기록을 근거로 충현원에 자신의 부모를 찾아줄 것을 부탁했다.

유씨는 “희미하게 기억에만 남아있는 어릴 적 내가 지낸 장소를 다시 보고 싶었다. 내가 처음 시작한 곳에 다시 서 있다는 게 꿈만 같다”라며 충현원을 찾은 소감을 전하고 “꼭 내 친부모를 찾아달라”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유씨는 “고국을 잊지 않고 고국의 고아까지 데려다 키우려는 이들 부부의 정성에 감동을 받았다”며 “최선을 다해 유씨의 부모를 찾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다시 서울로 올라가 아이를 데리고 17일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학생 50명에 장학금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 양휘부)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2009 KOBA CO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5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미래 광고인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 광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국내 광고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복 64주년 만세 삼창

광주국학원 회원들은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광주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광복 64주년 기념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행사를 갖고 만세 삼창 등을 했다. /워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금호고속, 어려울수록 더 돕는다

현비동산 어린이 초청 영화 관람

올들어 4개 사회단체 새로 지원

금호고속과 금호터미널이 어려울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려 기업의 진정한 사회공헌을 보여주고 있다.

금호는 지난 14일 사회복지단체인 ‘현비동산’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을 유스퀘어로 초청, 문화관 견학 및 영화관람, 매표 체험

등을 실시했다.〈사진〉

금호는 현비동산을 비롯해 을해 들어 동구노인복지회관, 평강의 집, 홀더생존동 등 4곳의 사회단체에게 새로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금호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기존의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돈보스코나눔의 집 등 모두 14곳으로 늘어났다.

금호가 복지 지원을 늘린다는 경계가 어려울수록 더 살기 팍팍해지는 소외된 이웃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살만할때 찾는 것보다 어렵다고 눈길은 주지 않는 곳이 늘어날 때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금호고속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복지단체에 4억여원을 후원했다. 특히 요즘에는 도시락배달, 병원진료 도우미, 무료급식, 대화 도우미 등 직접 실천하는 봉사에 역점을 두고 있다.

김성산 금호고속 사장은 “지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라며 “사회공헌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가치있게 꾸려가고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소외계층 무료 법률상담

정희중 전남대 교수 타계

임래현 광주전남발전 정책포럼 상임 공동대표(변호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시 남구 구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및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내과·정형외과·치과·한방 등 10여명의 의료진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5명이 참가해 도움을 주게 된다.



내방

▲안창호(광주교검 검사장)씨 ▲이건리(차장검사)씨

남도전통음식 계승발전에 앞장서 온 전남대 정희중 교수(응용생물공학부 식품공학 전공)가 지난 14일 새벽 세상을 떠났다. 향년 56세.

최근까지 남도음식 관련 연구와 각종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농림과학기술정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보여왔던 정 교수는 6개월 전 감상선암 수술을 받고 회복됐다가 병세가 다시 악화돼 이날 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뒀다.

남양 출신인 정 교수는 전남대 졸업 후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남대 16대 총장을 지낸 정석중 총장의 동생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조선대부속고등학교 제20회 동창회(회장 임성기)=20일(목) 오후 6시30분 백운동 모아산부인과 옆 대나무집. 062-671-8453.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 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강의=29일(토) 오후 2~5시 광주

대 중앙도서관 5층, 수백·나경·임향론·지도상명당 등 이론과 현상 제시(책자 무료 제공) 062-670-2161.

▲광주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희망상담=가족 갈등,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상담 및 개입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진행. 062-234-5791.

▲북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점. 062-261-5875, 011-9614-3348.

모집

▲풋볼프 친선경기 및 회원모집=발로 볼을 차 흘려 넣는 풋볼프 회원 모집,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풋볼프장. 010-4604-4608.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 여교사·학생 모집=성인한글 초급·중

급·고급반, 중급검정고시반 등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2~4시. 062-951-5397.

▲원불교 문화센터 3기 회원 모집(9월 1일 개강)=서예(월, 수 오전 10시), 요가(월, 수 오전 10시), 다도(목 오후 2시), 독서는슬지도(목, 오전 10시 30분), 노래교실(화 오후 2시), 규방공예(화 오전 10시), 수심결 강의(수 저녁 7시 30분) 쌍촌동 원불교문화센터. 062-232-7223~4.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 서구 거주자,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인 관련 자격증소지자 우대, 아이돌보미 25명 모집, 5일까지 방문접수 서구 양3동 385-20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062-369-0074~75.

▲전통문화 보전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

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1-9440-2512.

▲선원·양어장·양식장 일할실 분모집=남구 백운동 백운광장 광우은행 365코너 옆, 월급제(일당 10~15만원), 초보자·경험자 우대. 062-681-7770.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 모집=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광주물새 클럽 수영 동호회원 모집=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다이어트 계모임 회원 모집=월 2회 모임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 35~55세 일곡·상무·문흥·봉선·첨단지구 선착순 6명. 010-2425-4408.

▲광주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독서치료사-매주 월요일 오후 7시~10시, 방과후아동지도사-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 심리상담사-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시, 강사-시인·아동문학가·심리상담지도사 김성구 박사, 문의 평생교육원(062-670-2167, 2168)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오카리나 회원 모집=매주 목요일 주1회(3개월) 건강타운복지관 1층, 광주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062-603-8860~71.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 모집=즐거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수신 환영. 010-3608-1060.

▲(사)베트남참전유공자회 광주시지부 베트남 참전 전우·회원 수시모집=서구지회(018-645-2631), 남구지회(010-8000-6320)

▲세호크 레저스포츠클럽 동호회 회원 수시모집=페어링라이더, 행글라이더, 윈드서핑, 수상스키, 제트스키 등. 062-675-8722.

▲백운산 다이빙스쿨 회원 수시

모집=잠수교육, 스킨스쿠버다이빙. 062-671-9918.

부음

▲김용택씨 별세 병곤·지곤·충곤·화자·휴자·숙자씨 부친상=발인 18일(화)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신순희씨 별세 류지선·범선·지아씨 모친상=발인 17일(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오근환씨 별세 기선·경희·경숙·경미·경연씨 부친상=발인 17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박난국씨 별세 정형호·형민·연

실·연숙씨 모친상=발인 17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문순초씨 별세 나상익·영남씨 모친상=발인 17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이영기씨 별세 남석·원주·규육씨 부친상=발인 17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김순림씨 별세 노중천·남기·점기·세근씨 모친상=발인 17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7분향소. 062-231-8907.

▲오정록씨 별세 남근·효근·문희·미애·미정씨 부친상=발인 17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두번 슬로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 선진국형 정비시스템 프리드

현대중합상조

가입문의 1566-4499